

그린바이오혁신융합대학 전문 인재육성 본격화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우리학교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사업에 선정돼 지난 학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부터는 마이크로디그리 확대를 통해 학생이 본격적으로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재료,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산업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린바이오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종자생명과학, 유전공학, 바이오소재 등 첨단 융복합 분야 특화 인재 양성 및 급격한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연암대 총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대학은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원료 생산 등 4단계 핵심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해 공유 교과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 연구소는 기존에도 종자 생명 및 바이오 소재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왔다.

우리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마이크로디그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

다.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과목은 ▲생명 정보로 보는 미생물 ▲컴퓨터로 보는 식물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기술: 먹거리부터 의약품까지 ▲농업용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이며 각 과목은 3학점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린바이오융합대학사업단 전종성(생물학) 단장은 “이번 사업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각 학교의 특화 분야를 공유 교과목 형태로 운영해, 학생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소시엄 내에서는 대학,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연계되는 ‘WE-Meet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이는 산업체가 제안한 기술 개발 과제를 각 대학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학생과 교수, 기업이 협력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전 단장은 “우리학교 자체 그린바이오 식품 관련 프로젝트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프로젝트는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단장은 “컨소시엄을 통해 5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바이오산업 전반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동식물 기반의 의약품, 식품, 종자 생명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디대, 로마예술대학과 상호협력교류협정 체결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지난 10일 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이 로마예술대학(Roma University of Fine Arts)과 상호협력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학생 교류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협정은 지난 5월에 체결됐으며, 우리학교와 로마예술대학은 ▲전공연수 ▲공동학위 프로그램 ▲교수 간 공동연구 등의 교류를 진행한다. 로마예술대학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립 예술 아카데미다.

협정은 로마예술대학 측이 올해 초 우리학교에 먼저 제안하며 이뤄졌다. 예디대 김진오(환경생태학) 학장은 “이번에 체결된 상호협력교류협정은 학생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학교의 디자인 전공 분야가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으로 매우 흡사하게 형성돼 있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 간 학생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 학장은 “학생 간의 졸업 작품을 교환해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예디대 학생들은 로마예술대학으로 해외 전공연수를 다녀왔다. 작년에 이



학생들이 로마예술대학 사진 실습 수업에 참여했다. (사진=예디대 김진오 학장 제공)

어 두 번째로 로마예술대학에서 진행된 전공연수다. 학생들은 로마예술대학에서 로마 예술의 역사, 현대 예술 이론 등 이론 수업을 수강했다. 또 이탈리아 국립 현대미술관을 다녀오며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학장은 이러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오는 2학기에는 로마예술대학 학생이 우리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다. 우리학교 학생도 전공연수뿐만 아니라 로마예술대학에서 한 학기에서 길게는 일 년 동안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도 예디대는 구상 중이다. 김 학장은 “양 학교 간의 전공연수 교류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

탈리아와 로마예술대학의 예술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계 전공연수를 다녀온 이태희(시각디자인학 2023) 씨는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창의성과 표현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전공연수가 진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 전환점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이 씨는 ‘사진 실습 수업’을 꼽으며 “로마 시내에서 자유롭게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콜라주를 제작해 로마의 풍경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